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봉선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 지상 중계 10  
월운 스님(봉선사 조실·동국역경원장) / 능엄경(11월 25일)



# 벼락같이 도둑 잡듯 정신 차리고 공부하세요

<능엄경>은 많이 읽히는 경인데 돌아갈 신 나 의 은사(禪虛 老師)님께서 일생동안 이 경을 전공하셨습니다. 범어의 원 이름은 '수랑가마(Surangama)'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로 번역하는데 '필경견고(畢竟堅固) 건상분별(健相分別)'입니다.

'필경견고'란 끝까지 견고한 것이 금강과 같다는 뜻입니다. 어떤 번뇌도 다 파하고 도둑 강하고 어떤 번뇌에도 파괴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건상분별'은 씩씩한 재상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끊임도 없고, 판단의 착오도 없고, 시행의 과오도 없다는 것이지요. 공부가 이렇게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필경견고'는 본질면에 붙인 이름이고, '건상분별'은 실천면에 붙인 이름입니다.

확실한 진리, 그리고 그 진리에 의해 뒤아 나갈 때 분명 성불할 수 있다는 두 측면을 합쳐서 '수랑가마'라고 합니다.

<능엄경>은 아난존자라는 덕 높은 분이 어찌다가 마다가(摩訶迦라)는 여자 주술사(呪術師)에 홀려 들어갔는데, 그녀는 주술로 남자의 정신을 빼놓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아난존자는 평소 공부한 것이 좀 있었기에 잠시 최면에 걸렸다가 '이게 아난데' 하고 정신을 차렸지만 부처님이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보내 그를 데려왔습니다. 부처님 앞에 풀이없는 아난존자는 부처님께 말합니다. "평소 경만 외우고 마음 뒤는 공부를 못해 오늘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부터 마음 뒤는 공부를 하고자 하니 실제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요. 부처님 말씀 외우는 데는 내로라할 정도였지만 모습이 아주 우습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난존자가 공부하는 법을 알려 달라고 청함에 따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방어래께서 보리를 이루신 묘사타(妙奢摩他)와 삼마(三摩)와 선니(禪那)와 최초방편(最初方便)입니다.

사마타라는 말은 번어로서 고요할 정(靜)으로 번역합니다. 시끄러운 경계를 극복하여 고요하게 만들고, 나쁜 마음을 길들여, 작하게 하고 모든 차별된 현상을 평등하게 보아 나가는 그런 공부를 사마타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삼마는 꼭두각시 환(幻)으로 번역합니다. 환이란 있는 것을 없는 듯이, 없는



월운 스님은 '확실한 진리에 의해 뒤아나기면 성불할 수 있다'는 <능엄경>에 담긴 뜻을 강조했다.

것을 있는 듯이 관찰하는 공부입니다. 말하자면 요술쟁이가 아무것도 없는데서 별 것 을 다 만들어내듯 하는 것이 환입니다. 마치 반병에서 비둘기도 나오게 하고 비둘기 공 동에서 국수도 나오게 하는 게 환이요 마 술인데, 번뇌를 다 때려잡아 아무 것도 없 어진 뒤에는 다시 끝없는 중생세계로 뛰어들 어 울고 웃으며 그들을 자기의 일처럼 구제 하라는 것입니다. 사마타가 철저한 자기수 행이라면 삼마는 중생을 위해 있는 그대로 활동하는 공부입니다. 깨달은 입장에서 보 면 다 쓸데없는 것이지만 교화해야 할 그 사 람 입장에 서서 교화하는 것이 바로 삼마이 며, 중생을 교화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사 마타만 주장하면 결벽증(潔癖症)에 걸리고 삼마에만 걸리면 남의 사정만 보다가 자신 의 공부를 잘못되게 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놓치지 말고 현실에 잘 적응하여야 중생교

회를 잘 한다는 것입니다. 선사는 이 두 가지, 즉 집안살림과 바깥 살림을 균형있게 유지하라는 뜻이예요. 이 세 가지가 공부하는 데는 '절대 묘책(妙策)'입니다. 그래서 천태(天台)의 지관(止 觀)도 이것에 기초했고, 모든 경에서도 양 극에 치우치지 말고 중도에도 머물지 말라 고 한 것입니다.

만 나중의 최초방편이란, 그 여러 공부 가운데 가장 최초에 해야 할 공부라는 뜻인 데 여기서 말하는 최초란 우리가 말하는 최 초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공부의 과정마다 에서 최우선적으로 마에 걸리지 않도록 신 경 쓰라는 말입니다.

<능엄경> 10권중, 제1권부터 제4권 중반 까지는 사마타의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중에도 제1권은 진(眞)과 망(妄)을 바로 알라는 법문이니, 마치 여권집에 무수한 사

람이 드나들어도 주인은 늘 제자리에 꼼짝 않고 있듯이, 상황 따라 기본 따라 오가는 마음은 망상이요 사시사철 제자리에 변치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은 주인이며 참마음 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제2권과 제3권 전체에서는 어디서 나 불성(佛性)을 만나 깨달으라 하셨으니 색리교청(色裏膠清) 해중함미(海中鹹味), 단청 속의 아교플, 바닷물의 짠맛과 같이 눈앞에 있는 현실이 그대로가 여래장이라 고 하고, 나아가서는 오온(五蘊) 육입(六入) 십이처(十二處) 십팔계(十八界) 칠대(七大) 가 원래 여래장(如來藏) 묘진여성(妙眞如 性)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제4권 전반(前半)에서는 이상의 사 마타 삼마, 두 법문 말씀에 의해 몇 가지 의 문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설법제일'로 알 려진 부부나존자(富樓那尊者)가 여쭙습니

다. 다시 말해 "모두가 본래 여래장이라면 범부도 여래장, 성현도 여래장, 산도 여래 장, 강도 여래장이어서 모두가 동일할 터인 데 왜 산하대지가 생겼습니까?" 한 것이 첫 째 질문입니다. 똑같다면 즉 본래 평등한 여래장이라면 산하대지나 범부는 왜 생겼 는지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의 질문을 설적 의난(佛跡疑難·윗말에 더 잡아 질문함)이라 하는데 하나의 경전이 성립되는데 꼭 있어 야 하는 대목입니다. 그 이유는 앞뒤 말씀 이 모순처럼 보이는 일을 방지하면 경의 정 체성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모두가 원래부터 여래장이라면 이는 천연적으로 부처가 되었다는 얘기인 데 천연이라면 자연이요, 자연이라면 인연 과는 상반되는 주장으로써 평소 부처님이 주장하시던 인연에 배치되고 도리어 자연 의도(自然外道)와 같게 되니 그럴 수가 있 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자연외도(自然外道)란 모든 현상이 어떠한 원인이 있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저절

로 크게 두 개의 질문을 던져서 사마타의 수행법을 오해 할 수 있는 소지를 배제하였 으니, 세상이지를 설명하기 위해 인연이니 자연이니 하는 말을 썼지만 여래장자리에 는 꼭 인연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 자연이 아 니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망상이니 따지 려는 마음으로 보지 말고 분별심을 쉬면 참 모습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음, 제4권 후반부터 제8권 중반까지는 두 번째 물음 삼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 분을 흔히 수도분이라 부릅니다. 즉 견도분 에서 터득한 진리의 세계를 실제로 찾아 들 어가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는 네 토막으로 나누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기조를 바로 잡으라'입니다. < 능엄경>에서 부처님이 수행의 기조로 삼았 다고 하는 것은 '심인심(審因心) 심업분(審 業本)'입니다. 심인심이란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라고 하신 내용으로, 심업분이란 그 목표를 성취해나가는 방법이 합당한가를 정확히 살펴 출발하라는 내용입니다.

## 불성에 대한 본질적 믿음과 실천 설명한 경전 분별심 쉬고 '참모습' 보기 위해 계율지켜야

로 생긴다는 사견(邪見)을 가진 의도로서, 부처님이 제일 싫어하신 의도입니다.

부처님이 처음 출가해서 어디로 가야 생로병사의 고통을 면할까 하시고, 유명한 수행자들을 두루 찾아다니시다가 처음 한 수행자를 만나 이 문제를 물으셨는데 대답 하기를 "브라흐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사서 그러니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유신론입니다. 즉 신에 의지해야 구 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두 번째 만난 사람이 이 자연의 도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냥 두면 언젠 가는 저절로 고통이 끝날 것이니, 하려고 애쓰지 말라, 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도리어 잘못이니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놔두면 다 된다"는 얘기 와 "우주만법이 본래가 여래장"이라는 얘 기가 어떻게 다르냐고 물을 것입니다. 이를

가을에 콩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팔이나 뽕단지(뽕지갑)를 가지고 가서 심으면 과 연 콩이 나오겠습니까? 거두려고 하는 씨 가 맞는지를 항상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심 인심입니다.

둘째는 '요점을 바로 잡으라'입니다. 즉 공부하는 길, 또는 방법을 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제5권 초부터 제6권 초에 이르기 까지 육전 등 25분이 모두 원통에 통하는 문이나 그중에도 깊고 원만하고 통하는 길 은 이근(耳根)밖에 없다고 소개합니다.

셋째는 제6권 중반부터 내심(內攝)이니, 삼학과 계율을 소개해 자기의 힘으로 뒤아 나가는 길을 보여 주셨으니 이는 율종의 이 론입니다.

넷째는 외심(外攝)이니, 부처님의 권위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피력으로 해 탈을 얻는 길을 보여주셨으니 이는 밀교의

머리에 똑똑!! 한문이 이제 쉬워집니다.

김광식 선생의 한문학습 노하우를 여러분께 모두 전수해드립니다.



지루하고, 답답한 한문공부, 이제는 그만!! 체계없는 주먹구구식의 교육방법 등으로 긴 시간을 요하는 기존의 한문 교육을 배격하고,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은 흥미롭고 보다 능률적이고 요령있게 한문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40여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행하여 얻은 노하우를 이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초·중·고·대학생·일반 실무용 한자 (6급 - 1급까지 능력시험 대비)

영어를 모르면 세계의 고아!  
한문을 모르면 아시아의 고아!  
17억 한문 문화권의 당당한 도전!  
한문을 알면 지구의 반을 정복한다!

###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

한자 고사성어 및 응용한자, 행정용어, 속담 등 1만여 문장 성어 수록

속담에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로 "사람도 공부를 하면 위인(偉人)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漢文書堂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全六套 90,000원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http://www.yosiamun.com)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번지 전화 02)737-0695/(02)2004-8219

- ◇ 현대불교신문 - <한문서당>에서는 딱딱한 사전적 풀이대신 쉬운 언어로 한자를 풀이하고 있다. 한자는 형성과정을 이해하면 저절로 외워진다.
- ◇ 충청투데이 - 체계적인 한문교육이란 무엇이며 예절과 충효문화교육에서도 상세히 알려준다.
- ◇ 중앙일보 -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한문에 속한 땀을 뺀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 ◇ 중부매일 - 한문교육 40년 경험과 최고의 경험과 최고의 결과를 후학들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엮은 책이다.
- ◇ 이원종 전 충북도지사 - 한문책으로서 우리 도를 빛낸 또 하나의 쾌거이다.
- ◇ 김중호 전 내무부 장관 - 한문문화권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지름길을 제시해 주어 경제와 문화가 한층 발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 범주사 도공 스님 - 한문과 불교문화는 밀접한 관계다. 불자들의 필독을 권한다.

